

이 폭염속에... 폐지 줍는 노인들 '위험천만'

광주시, 748명에 쿨스카프 등 지급... 불편하다며 착용 꺼려 폐지값 올라 경쟁 치열...생수 제공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답냐고? 더위를 느낄 틈도 없어. 이를 꼬박 일했는데 겨우 3000원 벌었네.”
지난 9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골목에 있는 고물상 땅바닥에 앉아 있던 오모(73) 할머니는 말하는 것조차 힘이든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는 이날도 종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날 오 할머니가 가져온 폐지는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6일(37.3도)부터 이틀간 모은 것으로, 손에 쥘 돈은 3000원(폐지 1kg 기준 140~150원)에 불과했다.

혼자 생활하는 오 할머니는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집에서 선풍기를 켜는 것도 사치”라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연방 닦아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20여만원의 기초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오 할머니는 “월세 10만원을 내고 나면 사실상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낼 여유가 없다”면서 “폐지라도 주워야 하루 두끼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광주지역에 역대급 뽕뚱더위가 지속되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목숨 건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여름철 폐지줍는 노인들을 돕겠다며 ‘쿨스카프’와 야광조끼 등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착용을 꺼리는 바람에 이마저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폐지줍는 노인들은 “요즘 같은 폭염에는 차라리 생수 몇 병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라며 광주시의 지원대책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폐

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은 동구 131명, 서구 101명, 남구 186명, 북구 214명, 광산구 116명 등 총 748명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내 고물상을 찾아오는 노인을 직접 전수조사했다.

광주시는 최근 폭염에 대비하러 예산 280만원을 들여 전수조사로 파악된 노인에게 3700원짜리 쿨스카프 750개를 지원했다. 쿨스카프는 물에 적시거나 냉동실에 얼려 목에 두르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효과가 일시적인데다, 수시로 물을 적셔야 하는 등 사용방식도 불편해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뉴스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우리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나 고물상 등을 통해 생수나 몇 병씩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구에 있는 한 고물상 관계자는 “매일 직접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지원해 줬던 쿨스카프와 야광조끼를 착용하는 노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여름철 폐지 줍는 노인들 돕고 싶다면 어르신들 위해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폐지 값이 두배 가까이 뛰면서 폐지 줍기 경쟁도 여름폭염만큼이나 치열하다. 노인들은 폭염에도 경쟁적으로 폐지수집에 나서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줍는 폐지값은 1kg 기준 지난해 70~80원에서 현재 140~

150원대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캔)은 kg당 700원으로 고물상 취급 품목 중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폐지 값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노인들 사이에선 폐지 줍기 경쟁이 가열돼 서로 다투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모은 폐지를 몰래 가져가는 모습 등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는 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설명이다.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도 올 여름은 유난히 힘든 여름이다. 혼자 사는 탓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마음껏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은 4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안전학원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들물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5000여명에 불과하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3.9도를 기록한 10일 폐지를 줍는 한 노인이 복구의 횡단보도를 힘겹게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중증 산후출혈 환자 10년새 2배 급증

고령 출산 등 고위험 산모 늘어 전남대병원 새 치료시스템 가동 체계적 협진 체계 구축해 효과

출산 후 과다한 출혈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산후출혈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0년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혼, 고령 출산 등 고위험 산모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체계적인 협진체제인 ‘BLEED SYSTEM’을 구축해 산모의 생명보호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10년간(2007~

2016년) 중증 산후출혈 환자가 2007년 10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중증 산후출혈은 산모의 최악의 경우 산모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남대병원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골반동맥 색전술,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골반동맥 색전술은 지난 2007년 기준 1건으로 중증 산후출혈 치료술(10건) 중 10%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6건 중 23건으로 85%를 차지했다. 반면 또 다른 치료술인 자궁적출술은 지난 2007년 90%에서 2016년에는 15%로 줄었다.

골반 동맥 색전술은 서해부의 대동맥

등을 통해 가는 도관을 삽입,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자궁동맥에 색전 물질을 넣어 혈류를 막는 시술이다.

골반 동맥 색전술은 전신마취가 필요치 않고 최소 침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자궁을 보존할 수 있어 향후 임신도 가능하다는 게 전남대병원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은 특히 이 같은 중증 산후출혈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과의 협진과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 산부인과는 지난달부터 여러과의 체계적인 협진체제인 ‘BLEED SYSTEM’을 구축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1·2차 병원에서 산후출혈 산모의 전원 의뢰를 받으면 곧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치료협조가 필요한 진료과 의뢰전에 환자도착 예정 알람을 보내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전남대병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한 뒤 각 과 의뢰전에 도착 알람을 보내고, 치료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위급한 산후출혈 치료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환자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윤호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BLEED SYSTEM’을 통해 중증 산후출혈 산모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진료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화의 성지’ 삭제 지시 의혹

김철, 이철성 경찰청장 수사 착수

이철성 경찰청장이 ‘민주화의 성지’ 문구를 문제 삼으며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광주일보 2016년 11월 21일 6면, 8월 8일 1·6면, 8월 9일 6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형사3부(김후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이 청장이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화의 성지’ 문구를 문제 삼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8일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성숙한 시민의식

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란 표현이 담긴 집회 안내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 청장이 강제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청장이 다음날 강원철 당시 광주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게 전화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나’, ‘촛불 가리지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라며 협박했고, 강 전 청장은 같은 날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이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지난 9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비하 발언’ 사과 요청서를,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인인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엄중 문책’ 요청서를 보냈다. /박진표기자 lucky@·연남뉴스

여수산단 공장서 8일만에 또 화재

1시간30분만에 진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도 이날 들어 2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6시 38분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공장은 지난 2일 단지 내 공장 변전실에서 화재가 난지 8일 만이다. 원유에 열을 가해 아스팔트 등을 추출하는 제3

중질유분해시설(VRHC)의 냉각기 인근 배관에서 최초로 불길기 치솟았다.

공장 측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30분께 원료공급밸브를 완전 차단했으며, 오전 8시 13분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단지 내 공장 변전실에서 화재가 난지 8일 만이다. 원유에 열을 가해 아스팔트 등을 추출하는 제3

폐업 위기 감추고 투자 유인 수십억 가로채

서부경찰, 업체 대표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10일 폐업 위기에 놓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대표를 구속했다.

게임개발업체인 I사를 운영하던 이모(43)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34명을 속여 3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조만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값이 10배 이상은 오른다. 투자하면 매년 수익금 13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투자금 일부를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파악한 피해자가 34명이지만 전체 피해자는 25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금액도 10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신생아 병원에 버리고 도주한 20대 산모 자수



○...자신이 낳은 아

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 버리고 도망간 20대 산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산모 A(24)씨는 지난 9일 오전 3~7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지난 7일 낳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도주했다는 것.

○...A씨는 이번 태어난 아들이 3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2명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고 나머지 1명은 A씨의 어머니가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광주의 한 버스터미널 대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 경찰이 자신을 추적 중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정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위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곡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곡동 상무한신휴먼리조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원 3500백 시설비 9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거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